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와
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연대 질서를 위한

대 / 토 / 론 / 회

98. 10. 14

문과대 여성모임 (준)

공대 여성모임 (준)

사회대 beyond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womb

『두입술』 편집위원회

신과대 물구나무

애포텍

우 글심는 차례

* 네토본회를 제안했던 발제문

* 자치단체 발제문

문과대 여성모임 (준)

공대 여성모임 (준)

『두입술』 편집위원회

애포텍

사회대 beyond

열세번째

* 여성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몇가지 아이디어들

* 총학생회 발제문

* 자치단체 연락처 모음

- 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자치단체모임 발제문
- 수신 :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여성자치단체들
- 발신 :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 시타와 새

1. “바빠서 연대할 시간이 없어요”?

: 학내 여성자치단체들 사이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자!

매일매일의 싸움에도 바거운 우리들에게, ‘연대’라는 건 조금은 무거운 화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무거운 화두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단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대한 가부장적 구조 아래에서 힘없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적 정리해고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평생을 숨어 지내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우조교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결국 (제한적인 의미나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가르는 경계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 사이의 연대”에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학내 여성모임들이 모이고 해체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또, 뒤늦은 회한(?)이나마, 그때 우리가 함께 연대했다 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축적된 단체가 새로 태어난 단체에게 노하우를 알려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 태어난 단체가 신선한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라면, 두 세 단체들 끼리의 단기적인 연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즉,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대’라는 단어를 멀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힘을 합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연대가 아닐까요? 추상적이고 심오한 연대“론(論)”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 그러면, 어떤 “틀거리”로 연대할 것인가?

연세에서는 이제까지 크게 두 가지의 실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자치연합”이 하나이고,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다른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틀거리에 대해서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모색하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음...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아주아주 단순화시키자면, 여성자치연합은 말 그대로 여성자치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집행부나 회장/부회장 등의 체계를 가지지 않고, 정기적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의 사업을 펼쳐 나가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자치연합에서 일했던 분의 별도 발제가 필요할 것 같군요.)

▶ 총여학생회는 형식적인 면에서 이와 다릅니다. 모두들 알고있드시피, 1년에 한번 있는 "선거"를 통해서 회장/부회장이 당선 됨으로써 총여학생회가 구성되는데, 이때 1년간의 대강의 사업들이 '공약'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고,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후 '집행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제 10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의 경우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고민했었고,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몇 번의 자치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형식이 학내 여성운동의 연대와 발전에 더 적합한가?"일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실험이 끝나가는 현재,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선거 시기가 가까워 왔다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또하나의 변수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여성자치단체들에게 총여학생회가 필요한가?",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들을 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성운동을 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여성자치연합'이나 '총여학생회'를 사고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한 줌도 안되는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서로 강건너 불구경 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일상에서 부딪히는 성폭력이나, 총여학생회가 학칙제정운동을 통해 반대해온 성폭력이나, 결국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같은 문제이니깐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드리는 간단한 '발제'입니다. 이제 두 번의 실험을 평가하고 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 즉 여성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식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들이 서로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구요, 나아가 이번 11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안한다면 어떤 "다른" 대안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도 이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양자 택일이 아니라 제 3의 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위에 작성한 이야기꺼리들은, 사실 한번의 걸쭉한 수다로는 결론이 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제안을 드릴 때 "학내 여성운동에 대한 대토론회"를 모든 연세인(특히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구요.

이번 회의에서는 대강 서로 논의의 감을 잡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과대 여성모임(준)

1. 문과대 여성모임의 힘겨웠던 한해살이

97년 12월, 문대내에서 나름대로 여성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오던 네 명의 여학우가 여학생의 비율이 70%나 되는 문대에서 여성운동의 흐름이 전혀 표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겨울방학동안 여성학 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신입생 OT를 맞아 대학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진보와 평등의 공간이 결코 아님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모임의 초동주체들은 여성운동에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사상적 기초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따라서 세미나 커리를 자체적으로 준비할 역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중에 진행하였던 세미나는 총여의 도움을 받아 간략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여성모임 구성원들의 요구를 받아 자체의 세미나 커리를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론적 취약성으로 인해 우리의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역량도 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마저 여성모임 구성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여성모임을 지탱해 주었던 처음의 결의마저도 조금씩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속에서 서서히 이론적 기초도 쌓을 수 있고 여성모임 구성원들의 분산된 문제의식들도 하나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그 당시 학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던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과 여성실업문제에 대해 여론화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모임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해 다각도로 학우들에게 다가가서 쟁점화해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고 싶었지만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자치단체들의 도움이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었고, 두 이슈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학내의 각 자치단체들과 총여와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대에서 자치공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여성모임은 여성의 신체의 자율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여성연대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공간인 여학생 자치공간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철을 맞이해서 여성모임에서는 문대의 각 선본에 여성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이 여성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선거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새내기 자치단체로서 문과대 여성모임의 한해나기는 정말 힘겨웠고 연대의 필요성과 연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직접 부딪쳤던 문제는 크게 이론적 기초의 취약과 실무적 기초의 취약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커리뱅크의 구축이나 각 자치단체들의 Know-how 공유등을 연대의 틀 속에서 사고하고 구체화시킴으로써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학내 여성운동의 질서에 대해서

학생운동의 위기를 논함에 있어서 연합체 운동의 위기 또는 학생회 운동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11년 전대협과 한총련의 역사는 이제 박제화되었으며 학생사회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대안적 패러다임의 부재를 주요 근거로 들면서 선거에만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생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나타난 대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은 기존 학생운동의 하부 조직의 하나처럼 간주되면서 독자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초기와는 달리 최근 여성문제를 독자적으로 고민하는 흐름이 대두되면서 종래의 총여학생회 구조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생회 패러다임에 대한 거부와 대안적 패러다임의 구축 사이에서 그 단절과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생사회의 학생회 중심 패러다임이 얼마나 굳건하고 수직적인 권력체로 서 있는가를 반증하는 예가 될 것입니다. 학생회 중심 질서는 '학생회를 잡지 못하면' 학생운동 조직의 활동력을 크게 침해한다는 뼈아픈 경험들로 인해 각 조직들을 끊임없이 선거로만 집중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대안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여성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간과 재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운동도 학생회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렇다면.....

학내의 여성운동이 독자성을 확보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회는 학우대중의 권리를 위임받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운동의 가장 효율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총여학생회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선배님들의 힘겨운 싸움의 결과물이고, 남성중심적인 학교 기관과 학생사회에 대해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발언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여학생회의 해체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초기의 총여학생회는 기존의 학생회 사이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수 있지만 독자성을 확보한 지 얼마 안되는 현재 학내의 여성운동은 기존의 학생회 사이클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여학생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얼마나 우리가 학우대중에게 여성주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운동의 하부조직쯤으로 간주되었던 총여학생회의 초기 역사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 학내의 여성운동은 총여학생회를 통해 여학우들의 대표체로서 학우대중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각 자치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 여성주의 문화실험 모임 옴

-feminism image creator

옴은 문화라고 총칭되는 예술 분야, 혹은 생활 문화 등 비정치적이라고 분류되기 쉬운 영역에 잠입하여, 그 허가받은 이데올로기 훈육의 장에 작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자 모인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만화, 노래, 영화, 춤등이나 생활 속의 언어문화, 놀이 문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95년도에 성정치 문화제를 시작으로 결성된 성정치 위원회의 뒤를 이어 새롭게 여성 운동의 장을 설정하고 올해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옴은,

- 비정기적으로 여성, 문화, 여성주의 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여성 주의적인 공간실험으로 학관 3층의 휴게실을 한 학기 동안 관리하며 그 안에서 날적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들을 만들고 엿보는 등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과방에서 바닷가 옴티에서 버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부장의 폭력'이 발동하는 순간 순간들에 어떻게 멋지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짜보는 '트레이닝 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여성들이 대상화되고 평가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자신을 발산하며 놀아볼 수 있는 한판을 만들어 보고져 '들꽃'과 함께 한달된 신생 밴드 '변신 시멘트 귀신'과 함께 뒤편으로 되리 식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춤과, 노래와, 퍼포먼스와, 여성들의 합성이 어울어진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10월 30일 6시경에 학관 앞에서 있을 예정이며, 행사명은 '얼음땡!'입니다....의미는 나중에...

학내 자치 단체 연합에 대한 단상들...

우선 지금까지 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자하는 시도가 여러 번 이어졌으나 아직까지는 그 연대의 끈이 미약하여 앞을 구상하고 있는 자치 연합 중심의 작은 총여 상이나, 단독으로 자치 단체가 총여의 제정과 공간을 관리하는 등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받침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평가됩니다. 그리하여 내년 한해도 이번 해와 같이 총여로부터 자치 단체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실험을 계속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 한해에는 자치 단체 연합끼리의 결속력이나 상호간의 연계가 지속적이고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구상이 선행되어야 할 터, 우선, 강제와 의무 조항위주의 조합 형태는 우리가 지향하는 연대체가 아니므로, 최대한 각자의 모임을 꾸려 학내에서 운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연대체에서 얻어갈 수 있어서 여성 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 기반하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예를 들어 통신 공간에서 새로 모임을 꾸리는 데 상담을 하거나 노하우를 전하기, 혹은 자신들의 행사등을 홍보하여 행사시 지원 사격 받기, 외부에서의 사건이나 연대의 움직임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의욕을 가지고 개인이 자치 모임을 꾸렸다가 단기간에 모임이 끝나버리는 예가 많은데, 만약 우리가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큰 사업들을 벌여서 많은 사람과 접하는 이제까지의 방법을 지양한다면 이제는 모임들이 일상 생활 속에 녹아들어서 작은 사업들을 벌여나가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과대별로 과별로 장르별로 많은 자치 모임들이 생겨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도움하에..... 이렇게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총여에 대한 거친 상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작은 총여?

많은 사람들이 구상하는 작은 총여란 단순히 집행부의 인원이 적은 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총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총여가 학내 운동체 중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단체여서 모든 사건이 총여로 접수되고 사업들이 부가되고, 재정이 모이는 식의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외적인 여성 문제 발생이나 외부 단체의 제안, 운동에 필요한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총여가 본이 아니게 독점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총여가 먼저 자치 단체에 사업을 제안하고 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구도가 재생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공간에서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 총여가 정보 센터의 역할을 해서 단시간 안에 학내 운동 이자들이 정보를 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작은 총여상에 걸맞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들이 총여에만 집중되지 않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학기초에 총여는 자신들의 공약에 합당한 사업들의 기획을 가지고 자치 단체들과의 회의 테이블을 갖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수위의 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과 맥을 함께하는 사업을 택해서 그것을 일년동안 꾸려나가고, 총여는 그 사업을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물론 자치 단체의 다른 활동들에도 지원을 해야겠죠...또한 총여의 사업을 떠맡느라 모임 고유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모임이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움의 완결되지 않은 고민의 내용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더 다듬어지고 구체적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세대 내의 여성운동을 안착화시키고 생활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총여 선거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봤으면 합니다.

♀ 공대 여성모임을 소개합니다.

'공대여모는 어떻게...

공대 여성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대에 단 하루만 살아보면 공대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단위에서도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공대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 말들 중에 공대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하나에도 공대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 여성들마저도 스스로없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바로 공대의 극히 낮은 성의식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공대 여성 모임입니다.

물론 총여학생회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공대 여성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직접 부딪치는 것들을 가장 절실하게 자신의 일로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을 말하고 개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일 겁니다. 또 이러한 현실에서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찾고 제시할 이들 역시 공대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대 여성모임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비롯한 여모 내부의 여러 계획들과 함께 각종 사업들도 구상 중입니다. 물론 자치 연합에도 명의를 냈구요.

공대여모가 갖고 있는 어려움...

그러나, 아직 발족식도 제대로 갖지 못한 준비모임일 뿐입니다. 하려고 하는 이들 역시 극소수인데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모은 사람 중의 우파 쪽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도의를 받아냈는데 앞으로 순탄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파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또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요. 또, 앞서 말했듯 공대의 성의식이 너무 낮아 공대여모 내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굴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페미니즘에 관한 책만 읽는 것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선부른 연합세미나는 여모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추진했다가 낭패보게 되겠지요. 다음으로 학번 문제가 걸리적거려네요. 막내가 97입니다. 지난 목요일 세미나 준비모임을 가졌는데 97학번 2명 95학번 1명이 왔습니다. 앞으로의 섭렵대상(?)중에서도 98을 보이지가 안으니...

공대여모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너무 정정거런 것만 같네요. 그러나 낙관적인 부분도 많지요. 거시적으로 행해지는 여성의 억압들이 많아서 공대 내의 성문 제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이 의외로 쉬울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감에 있어 감정적인 곳을 약간만 자극해도 그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니깐요. 또 공대가 전반적으로 사회과학계열이 취약하다보니 논리적 설명이 부족해 분명히 이견 성차별인데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욕구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대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공간이 있어 이를 토대 생활도서관등의 사업을 벌이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외 토론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우 두입술 편집위원회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현10대총여의 공약으로 인해 탄생한 단체입니다. 이전에 총여의 기관지로 존재했던 '연세여성'(그때는 신문형식이었죠)을 독자적 여성언론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었죠. 작년 12월 총여의 집행부가 꾸러지면서 편집위원회가 꾸러지게 되었고 지난 1학기 때 '두입술'이라는 제호로 창간준비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창간준비호는 '자치'와 '연애'라는 테마로 구성되었고 현재 '여성의 독립'이라는 테마로 창간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적구성은 92학번 한 명, 93학번 한 명, 95학번 세 명, 96학번 한 명, 97학번 한 명입니다.

'두입술'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모르신다면 두입술 창간준비호를 참조하십시오. 두입술은 학내 여성전문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른 매체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끼워주기 식이었죠. 이슈화되니까 한 번쯤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나 여성의 일상, 여성의 삶을, 여성의 목소리로 담아낼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입술'에서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하지만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자잘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려 합니다. 이번 테마인 '여성의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앞두고 미래가 암담한 우리들의 상황을 정치적 구호로 풀어내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두입술'에서는 당장의 취업현실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풀어내려 합니다.

현재 두입술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입니다. 총여와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그 '독립'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재정적으로 예측(?)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치는 독립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재생산 문제 또한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또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데 '두입술'의 경우 워낙 고학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존립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꼭 신입생을 원하는 모임은 아니기에 뜻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예측도 해봅니다.

'두입술'은 두입술 편집위원회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낸다고 거창하게 말은 꺼내놓지만 어쩌면 우리들만의 자화자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간준비호의 경우 우리들의 성과(?)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지표도 없었습니다. 또한 창간호를 준비하면서도 시간에 쫓겨 담아내고 싶었던 이야기를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학내에서 함께 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두입술'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타 자치단체들과의 상호의사소통이 중요하겠지요.

이제야 학내 여성자치단체들간의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치질서를 만들어나가는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기 이전에 '두입술' 내부에서 논의할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창간호 마감에 쫓겨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후에 계속될 자치단체 모임에서 계속 이야기해보도록 하지요. '두입술' 내부에서도 좀더 문제의식을 심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겠구요.

♀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1. beyond는???

저희는 97년 사회대내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던 소수의 여학우들이 중심이 되어 시타의 제안으로 "3.8 세계여성노동자의 날"을 계기로 함께 모이게 되었다. 또한 작년 학기초에 총여보궐선거로 '참여성'이 등장하자 그들의 정책과 구호가 전혀 페미스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총여반대표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에 그 모임을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모임의 성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모임의 구성원이 93~96로 구성되어 어디서든 각자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여성학세미나'를 중심으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전반적이었고 뭔가 정치적인 감들을 포착해내는 일들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의미에 걸맞는 틀을 논의한 후, "forum"이란 틀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beyond의 유래입니다. 하하.(더불어 단체의 이름은 '가부장제를 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벌여왔던 forum은 97년 1학기에 '화장'을 첫 번째 주제로 삼았고, 2학기에는 '포르노'를, 올해는 2번의 자치규약 토론회를 거쳐서 "자치규약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자치규약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사회대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문제제기를 접하려고 하는 만큼,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들을 막기 위해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 쉽게 묻혀지지 않도록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 "참세상"통신공간에 beyond방을 열었는데, 이는 다른 여성단체들이 어떤 식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자는 차원에서, 여성관련문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자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점(고학번들이 졸업/ 총여활동/대학원생 등)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를 계기로 사립지기(사회대 통신공간)에 beyond방을 또한 개설하였는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문제에 관한 다른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어서 숨겨진 인재들과 의견공유를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한가부장하는 인간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는 통신공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치적인 의견(입장)들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beyond활동에 있어서 기존에 행해왔던 자보나 토론회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개개인의 생각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2. beyondian은?

97년도에는 가이아, 에미, 시타, 바라, 오늘, 피소, 하리(92~95)가 주축이 되어 다다, 단하, 이안, 열우(96~97)가 함께 했었는데, 총여 선거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이 총여와 두입술로 빠져나가고 98년도의 사업을 2,3학년이 맡게 되었습니다. 1학기에 새, 은지가 함께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일을 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노하우의 전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멤버들(97 상회, 주회, 옥수, 진희 98 주회)의 영입과 함께 1학기에 느꼈던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는 편이지요.

그리고 현재 beyond 고학번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어떤 공간에서 새롭게 여성운동을 고민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 즉 언제까지고 사회대 내에서 여성운동을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존재조건이 변화할 것임을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풍선언 학술제의 기고문(맑스주의에서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주장한다.)이 고학번에서 처음 벌인 기획이랍니다.

3. 연대의 문제에 관한 beyondian의 단상들

우선, '연대'라는 것을 통해 추상적인 사고에서 각단체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대라는 틀거리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의 활동과 연대의 활동이라는 이중의 역할부담으로 떠맡겨지는 불상사가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운동들의 활성화라는 막연한 기대(추상적이면서 논리적인 연대의 틀)를 좀 더 현실화시키기위해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하고 '연대'를 사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출발선상에서 beyond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이것은 또한 'beyond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추상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beyond의 구성원들이 이 모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 가라는 또한번의 구체적인 접근으로 무거움을 경쾌하게 풀어보려 했다. 그러면 모임에서 나눈 각 개인이 느끼는 얻고 싶고 부족한 점들을 편안하게 들려주도록 하지요.

beyondian의 수다!!!

다다: 요즘 LG에서 알바를 하는데 beyond에서 배우는 것보다 거기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로만 느끼던 것하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의 엄청난 차이라고 할까..그래서 beyond에서는 현실감각을 키우기 위해 학내를 벗어난 다른 사회단체와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운동이 여성주의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운동과도 관계를 맺어야 할 듯해. 일전에 성폭력을 저지른 고대총학생회장얘기를 듣고 잠시동안 그것을 이슈화하는데만 머리가 돌아갔던 것도 그렇구. '기회는 이때다'라는 편협한 방식이 여성운동에만 함몰되다보니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운동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번에 beyond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왔는데 계속 하던 사람은 신방과라서 자주 볼 기회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잘 못 챙겨주는 것 같애. 서로 챙겨주면서 이 모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시타: 빨리 늙은이들 모임을 만들어야!!!!!!

(나도 다다처럼 얘기 많이 해야지!---다다의 수다에 도전한 시타! 푸하하하)

가방끈 긴 대학원생으로서 학내에서 고학번 공개 seminar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저번 자치단체 모임에서도 '연대'의 구체적인 단상들을 잡아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판을 벌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야.

그리고 아까 다다가 말했듯이 beyond기존의 구성원들이 좀 안일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서로 알 것 다 알고, 말 안해도 얼굴만 보면 재가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 과방에서 매일 보니 얼마나 지겹겠냐. 그니까 '어휴, 또 저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한 태도가 배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대하게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서로의 삶이 융합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해!!! 관심을 가져라라라!!!

또 하나는 여성문제에 대해 수다떠는 판이 이번학기에 들어서 줄어든 것 같아. 쪽 봤는데 모임이 2학기 이후 '회의'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구.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서로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랐는지, 지내는지 알 수 있고 서로의 삶에 대한 융합 뿐만이 아니라 경험에 대해 비교하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이런 저런 얘기도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성문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모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어렵고 헛갈려 하는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단일한 '여성주의자'로서 서로를 상정하는 것이 또 다른 억압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을 맘 편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더더욱 필요할 것 같아. 더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보유통이 필요해. 참세상을 활용하라는 소리야!!! (통신의 귀재 시타는 혼내기만해!!무서버~~)

열우: 우리가 처음 이모임을 만들 때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공동체'라는 내부적 지향과 forum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가장 큰 축이잖아. forum이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 다다, 시타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끼리 수다떠는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건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못 살린다는 말인데...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요즘 그래도 아예 안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가 (사회대에서)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할 걸..

그리고 beyond에서 바라는 점은... 사실 이런 말하면 자기가 무언가 나서서 해야 하잖아. 나같이 누가 시켜야 일을 하는 스타일은 이런 말하기 겁나. 행동으로 옮길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말을 하자면..사람들이 이것저것 동시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바빠서 자주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인 활동"이 하나의 큰 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세미나를 같이 굴린다면가 하는 거 말야.

이안: 전에 이런자리가 있어서 그때 말했던 걸 다시 한 번 말해보면, 그 당시에는 지난 1학기 말 포주사건에서 느꼈던 내 입장의 애매모호함이 걸렸었고 그래서 "전선긋기"를 명확하게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일이라면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동기라는 계속 관계를 맺을 사람이고 그만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전선을 긋는다는게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앞으로 beyond에서 내가 할 일은 명확한 입장에서 전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근데...하하하(뽀뽀한 웃음)요즘 해이해진 정신상태로 인하여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야 할까...(한게으름하는 이안! 각성하라!!!)

그리고 나도 beyond가 이번 학기에 회의 중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이건 아마 "2학기 사업", 계속해서 자보를 쓰고 붙이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재미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즘 부쩍 beyond가 일 위주로 돌아가서, 매주 그런 일만 하다보니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 별로 없어졌어. 일상에서의 부딪힘이 고민의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또 예전과 달리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점이 없어졌다. 지금까지 forum이 그때 그때의 이슈를 포착해서 벌였던 기획이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못한 듯해. 이 부분이 필요!!!

옥수: 나는 beyond에 들어올 때 행정학과(가부장제의 온상지!!!!)라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기대가 들어. 20년동안 내 주변이 가부장제에 쩌들어 있었고, 나 역시 그러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익숙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beyond에 막상 들어오니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beyond와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아.(행정학과와 beyond는 천지차이!) 사실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을 편안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seminar도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책을 읽으면서 '거부감' 같은게 존재하는 것 같아. '거부감'을 한번에 없애기보다는 조금씩 없애나가는 일이 필요할 듯해..

새: 내가 저번 1학기에 처음 들어와서 활동할 때보다 2학기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건, 이번 방학 때 절친한 친구의 경험을 알게 되고 나서야. 그 이후로도 여러사건이 있었긴 하지만...성폭력을 당했는데 평생 비밀로 가지고 갈려고 하다 내가 순결이나 정조 따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그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거야.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건 짜증나는 세상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건 당시 고등학교때 알았다면 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과 지금의 나와 의 간격을 느꼈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만 바뀌어도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들 때문이었지. 그래서 저번 학기에 고민하던 운동 일반에 대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와 beyond에서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붙잡는 구체성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다다나 시타가 애기했던 수다의 판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저번 여름에 우리가 기획했던 수다의 장을 학기중에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참세상에 올라와있는 beyond자료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구... 또 통신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여성운동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 서울대 자연대에서 벌였던 학생 회칙이 어떤 식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글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만일 '학생회칙'을 만들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단하, 은지, 늬은 주희, 젊은 주희, 상희는 슬프겠지?
(왜냐구? 다다의 수다에 필적할 수 있는 좋은기회였는데 놓쳐서...)

4. 정리하자면,,,

beyond 구성원 모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대강의 수다를 통해 우리는 '연대'의 상을 조금씩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beyond 내부의 문제와 연대의 문제가 혼재되어 수다를 떨었는데 대중의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2학기 사업에 따른 '회의'중심의 문제와 신입회원들과의 관계라는 beyond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쉽게 말해서 보다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수다를 한껏 더 떨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회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판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 외부적인 연대의 필요성

그리고 beyond 외부적인 측면으로는 여성문제의 변화하는 상황들에 대해 정치적인 민감함을 얻고 싶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하나의 운동단체로서 각자가 서있는 기반에서 '정치적 감수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 '연대'라는 상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었다. 즉 자기발전의 가능성들과 맞물려 beyond가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바로 '연대'의 필요성으로 사고되어지는 것이다. beyond구성원들간에 연대가 이루어지듯이 다른단체와의 연대도 이런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 연대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인 연대의 상은 아마도 다른 단체가 벌이는 일들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자치규약'자료집 발간을 하면서 축적된 것(기술적인 것들/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런 사업을 막 시도하는 다른 단체에게 알려주고 이를 통해 그 단체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단체가 새로 내는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의 다음 버전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이나 모임을 통해 안정화시키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자치규약'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맨바닥에서 벽벽기는 자치단체'형태에서 벗어나 한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beyond는 forum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정된 세미나를 굴리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어려워한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방안도 모색해 볼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이런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소통의 공간"으로부터 '연대'를 출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자치단체 연대모임이 정기적인 테이블로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간 연대의 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다시처음부터다시”

* * *

총여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눈 논의들..(beyond)

1. 우리는 어떤 '총여'를 바라는가?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꾸려질 '총여'의 상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그러한 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히면서 그 후에 내년도의 '총여'에 대한 상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하겠다.

일단은 '자치단체연합'이 가질 수 있는 특이성, "자치운동"이라는 것이 주는 함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고 싶다. 첫째로, 이것은 자기자신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바로 자신을, 우리주변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이는 우리의 발전의 실질적인 결실이라는 것이 당장의 대외적인 활동들이 보여준다고보다 주위 사람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터전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여'라는 틀로 이루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학생회가 꾸리는 일년단위의 사업에 치여서 그 구성원들이 '자기발전'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기보다는 따라가기식으로 돌아갈 위험을 안고 있을 지도 모른다.

둘째로, 이것은 우리가 꿈꾸던 권력의 방식일 것이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로 발언하고 문제제기하면서 변화시키려는 것들을 통한 "자발적인 운동"의 방식이며,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부장제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점과 맞닿는 문제의식이며, 더불어 기존의 학생회패러다임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치단체연합'의 상은 장기적인 전망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상상일 따름이다. 왜냐하면 지금에야 비로소 '연대'의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수위의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장들을 만들어보려는 걸음마를 시작한 '연대'의 상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치연합'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반하여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우리는 이번 '11대총여'가 하나의 조건, 즉 기반이 되어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총여'는 궁극적으로 '자치연합'으로 가기 위해 하나의 "발전적 해체"의 모습을 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여'가 나중에 '자치단체연합'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자치단체연합이 아무리 평정한 활동가들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들(계정, 공간, 대표성)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실험들은 '총여' 혼자서 감당하라고 하는 점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성될 '자치단체연합'의 역량이 얼마만큼 성숙하게 되느냐의 문제와 맞물려서 '자치단체연합'과 '총여'가 함께 바꾸어나갈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1대총여'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연합'과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사고하는 '총여'의 상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2. 그렇다면 내년 총여와 연대체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앞에서 말한 실질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보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를 보면서 좀더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 '자치연합'이 그 실질적인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대해

(이는 '총여'가 대외적으로 벌이는 활동이 보이는 공신력과 '자치연합'이 보이는 공신력의 차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아직 지금의 논의에 끼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면서 발족식을 하는 것으로 '자치연합'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출발하자!

◆ '총학'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힘들을 갖기 위해서는 총학의 중운위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특별 기구인 동아리연합회와 같은 위상으로 그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 학교와의 관계에서

여학생처에서 '자치연합'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의 형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원의 형태는 학교와의 통로를 '자치단체연합'이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 대표성의 문제

지금까지 선거 세칙에 의하면 '자치단체연합'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 세칙을 바꾸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자치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표성은 일단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나 다른 학생회에서 혼

관스러워할 모습을 보니 재미있을 것 같다.)

◆ 만일 총여가 없을 때 '자치연합'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까?

이 부분은 아마 총학과의 관계가 어느정도 정립되고 난다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걸리는 점들이 많을 것이다. 대대적인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학교당국과 싸워나가야 한다면 학생회가 갖는 실질적인 힘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같은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장에 만들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학교나 총학과의 관계를 이런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한 이는 '자치연합'만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총여가 그 기반마련에 실질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치연합'과 '총여'가 함께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총여와 실질적인 논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을 통해 상호협의를 과정으로 '자치단체연합' 모두가 참여하는 혹은 하지않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들을 개별단체 혹은 총여가 결정하여 그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총여집행부1인+자치단체연합table' 혹은 '자치단체연합대표+총여집행부'라는 모임형태를 생각해보았다.

3.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자치단체연합'이라는 상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성숙한 발전으로 접어들게 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전망에서 '총여'가 해체되게 될지도 알수 없다. 그 불안한 미래의 상을 갖고 '11대 총여'에 지금의 논의를 강제하는 것은 어쩔 무리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다 잘살수 있는 운동"을 위해 '11대총여'와 '자치단체연합'이 서로의 활동들에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 열세번째

1. 열세번째는...

거칠게나마 열세번째의 정체성을 말해보자면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억압적인 질서(12)를 넘어서는 '차이와 연대의 정치'(13)질서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모임을 초기에 꾸리는 가운데 우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정리된 것이 이정도이다.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세밀하게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분명한 색채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다. 지금은 체제변혁적인 여성주의를 중심축으로 삼으며 체제에 대한 분석(가부장제와 자본주의와의 관계, 가부장제의 역사성 등)이나 변혁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차이의 정치학에 대하여 명쾌한 입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각기 독자적인 모순(성, 지차, 환경, 계급 등)들간의 연대를 통해 반체제적 질서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열세번째는 지난 겨울방학 중에 시작한 세미나 모임을 시작으로 하여 꾸려졌다. 그리고 총학의 '자유대학'을 통해 첫 행사(미술의 변천 속에서 본 여성)를 기획했다. 그 이후 살맛나는 세상과 함께 연대활동을 해왔으나 이번 여름 방중동안에는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다. 현재 열세번째 인은 96-2명, 97-4명, 98-1명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전부가 다중멤버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수는 약 3명정도이다. 여태까지 진행해 온 세미나에 대해 서술해보면 1학기정도 동안은 기본적인 여성학 입문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했고 현재는 우리의 정체성찾기와 관련하여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관한 주제, 차이의 정치학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중이며, 학기 말에 환경운동 동아리와 '여성과 환경'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통한 독자적 모순에 대항하는 운동들 간의 연대상을 잡으려 하고 있다.(자.개한 커리를 커리뱅크를 구축하면서 서로 공유하죠^^)

2. 1년동안의 어려웠던 점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열세번째의 전체 구성원이 적어도 2~3개의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 모임의 어려움과 함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열세번째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든 문제도 있었다.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10대 총여의 지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어려움은 크게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대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가 아니라 연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위이니 만큼 성원 재생산의 구조를 갖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세미나를 돌리는 것의 문제점 또한 있다.

사실 2학기에 들어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소통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공간을 이용하자는 안이 제출되었고 비교적 포럼을 만들기 쉬운 참세상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선 새로이 열세번째를 함께 하게된 사람들을 위해 점조직 형식의 세미나를 기획, 진행 중이다. 즉 기존 열세번째 구성원 대 새로운 사람의 형식으로 일대일 형식의 여성학 기초 세미나가 그것이다.

3. 자치단체연대모임의 방향성에 대하여

1학기에 진행되었던 자치단체연대모임에는 사실상 참여가 힘들었다. 그 당시에는 열세번째 공동체가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자치단체모임의 참여

의의가 13번째안에서 공유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

자치단체연대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열세번째 안에서 원칙적인 입장으로 동의한다. 이는 (이후에 자세히 언급을 하겠지만) 총여학생회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자치단체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이다. 우선 1차적인 필요성은 자치단체들 간의 최소한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다. 여성운동을 사고하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에 대한 언급을 논의로 한다하더라도, 자치단체들 간의 소통을 통한 열세번째의 발전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차적인 필요성(이는 열세번째에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연대모임의 필요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자치단체연대모임을 통해 자치단체의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학생회중심적 학내 운동판에서는, 특히 그나마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회나 동아리(이들은 인준을 받지요)의 형식을 갖는 여성자치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연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특히 공간과 재정면에서) 여성자치단위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연대모임은 학내에서 총여학생회와는 별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일 수 있다. 이는 제10대 총여학생회의 보궐선거가 무산된 이후 여성자치단체들의 연대모임을 통해 원래 총여의 재정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을 미루어모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차적인 필요성은 여성주의적인 질서를 사고하는 맥락과 연관된다. 즉 근대적 질서인 대의제의 비민주성에 대하여 비판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학생회라는 질서는 여성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자치단체연대모임은 학생회 질서 밖에서의 학생회중심의 운동구조 변화에 대한 시도이다. 그렇다고 할 때 자치단체연대모임의 지향점은 회의체가 아닌 연대체나 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만큼 우선적으로는 자치단체연대모임의 상을 회의체로 잡으면서 연계망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대모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통신공간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연대모임의 명의로 진행하는 공동사업의 상을 잡는 것(즉,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열세번째의 의견이다. 이전 여자연의 오류(여자연 테이블에 나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자연의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단위의 발전에 한계가 생겼던 모습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연대모임의 활동과 단위활동에 대한 공유와 이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는 자치단체연대모임의 독자적인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가단위활동의 발전과 자치단체연대모임의 상승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연대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도로 열세번째 안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자치단체연대모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4. 제 11대 총여학생회에 관하여

총여학생회의 질서가 여성운동에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 현재 학생사회에서 학생회중심이라는 명제가 거대한 무게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또한 학내 여성운동의 질서가 학생운동의 사회와 연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결국 총여학생회의 질서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학생사회 내의 학생회 중심적인 현재 운동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세번째는 우선 현재 학생회로 물질적인 운동의 능력(공간, 제정, 학교당국과의 통로 독점 등)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반대한다. 민주성의 외피를 갖고 있는 대외제의 비민주성을 전제로 할 때, 결국 반체제적인 모든 운동은 학생회로의 집중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회중심의 질서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학생회질서 외곽에서만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물론 학생회질서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학생회 안에서의 개혁案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상황을 판단하건데 학생회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 학생회질서 밖에서의 학생회중심성 해체에 대한 요구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총여학생회질서 및 학생회질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연대질서가 모두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11대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며, 자치단체연대모임과 총여학생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직 세밀화된 안은 아니지만, 우선 제 11대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중심질서에 대한 비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학내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자치단위의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계획들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를테면 자치단체연대모임 등 자치단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공간 마련이나 자치단체들에게 총여학생회로 집중되어 있는 물적인 능력을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그것이다. 또한 선거공간이나 학생회 공간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총여학생회를 자치단체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와 총여학생회의 자치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연대모임과 총여학생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자치질서의 독자성에 대한 인정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지만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연대모임과의 소통 구조 확보가 가장 1차적인 관계설정의 중요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세한 것은 자치단체연대모임에 대한 방향성이 논의된 다음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자치단체연대모임이 회의체라고 했을 때 소통공간에 대한 확보가 총여학생회의 일방적인 점유가 될 위험성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 여성들 사이의 즐거운 연대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

1. 통신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자!

현재 beyond 와 두입술의 경우 참세상(진보네트워크) 안에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통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일단 만들어진 후에는 통신이라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면, 참세상 안에 연세대 여성자치모임 공동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공동 자료실과 공동 소식통(여성관련뉴스모음) 및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퐁앗이" 게시판을 만든 후에, 각각의 모임들은 자기들만의 회원 자유게시판을 가지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미나나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소식통을 통해서 여성 관련 소식들을 신속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식통을 통해 선전하고 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3300원, 그리고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만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2. 어느 모임이나 부딪히는 1학년 기초 세미나의 문제, 이렇게 풀자!

특히 새로 만들어지는 여성모임의 경우, 여성학/페미니즘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커리큘럼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지요. 그리고 뭔가 아는 게 많은(???) 세미나 간사도 아주 부족한 형편이구요.

우선 커리큘럼의 문제는, 위에서 말한 통신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세미나를 했던 모임에서 자신들의 커리큘럼을 통신 자료실에 올려 놓고, 그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까지 덧붙여 놓는다면, 새로 세미나를 시작하려는 모임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미나 간사 문제 역시, 각 모임이 접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랄까...뭐 그런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를 안다던가, 학회 활동 등을 통해서 여성학 세미나를 해본 사람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 다른 모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세미나에 필요한 지식들 - 가령 어떤 책을 볼 때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부분에 관련된 참고도서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 세미나 때 자주 나오는 문제제기는 어떤 것인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등등 -을 전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이런 '가능성들'을 서로 모르는 채 고립되어 있다는 데에 있지요. 이제, 자주자주 만나서 가까운 인제들 썩히지 말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3.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심화를 위하여, 고학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년에 한번쯤 정기 학술제 혹은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보자!

에...이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성모임 속에서 '선배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어렵죠. 뭐, 워낙 어떤 모임을 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평소에는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의식들을 모아서, 일년에 한번쯤 공개 학술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은 젊은이들 - 여성학과 사람이라던가, 대학원생이라던가 - 이 되겠지요. (예구~ 칼맞겠당...)

~~김민정~~
김민정

유지혜

시타, 정희, 송하, 맹사

김민정, 박진원 (2명위)

(1명위) 김현정 (1명)

유진숙 (1명위),

4. 서로서로에 대한 지원사격(?)

예를 들면 아주 열악한 조건이라는 게 있지요. 가령 공대라던가, 상대라던가....남자애들이 득 시글거리는 단체들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워낙 일반적인 인식 수준이나 문화라는게 여성주의에 적대적이어서, 참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서로의 연락망을 활용하여 "지원사격"(예를 들어 연대자보라던가, 비슷한 경험에 대한 노하우 전수라던가)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될거예요. 자, 봐라, 우리만 속좁은 여자라서 뻑뻑거리는게 아니다...이런 식으로요. 이걸, 지원사격을 해주는 모임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은 일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눈물나도록 고맙지요.

5. 발 맞추어 걸어야 할 길

이건 이번 연고제를 지나면서 생각해본 것인데, 어떤 문제들은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문제제기할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마초맨"에 대한 반대운동 같은 것은 여럿이 함께 할수록 파급력이 있는 일이지요. 이런 문제들은, 혼자서 열받아 하거나, 하나의 모임에서만 일을 벌였을 때는 별로 변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이런 일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각각의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대학의 성차별적/가부장적 구조를 바꿔보자, 라는 것에 있다면, 이런 공동의 활동들도 필요하겠지요.

우 대토론회 총여학생회 발제문

-여성주의의 실험에 대한 평가와 11대 총여선거 여부에 대한 10대 총여학생회 입장

먼저 이러한 자리가 늦게나마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바로 이 자리가 연세내에서의 여성운동의 역량과 자치질서의 현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10대 총여학생회는 자치단체 쪽에서 작성한 발제문에 관해 나름의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제출하지만 이 입장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지 않는다.

1. 연세에서 있었던 여성주의 질서의 두가지 실험, 그 구체적인 궤적들

우선 두가지 실험이라 함은 97년 여성자치연합과 98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를 지칭함을 밝혀둔다. 간략히 이 조직들이 한 일을 여성주의적 질서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1) 97년 여성자치연합은,

96년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가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해 말 선거 공간에서 학생회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일상, 저항, 자치 문화제'를 통하여 각 단대 과 및 동아리 내에 존재하던 여성학 소모임 및 여성운동에 관심있는 자치단체들을 모았고 이 단체들 중 애드레, 법대 여학생회, 법대 소모임 동쪽, 성정치 위원회, 이름없는 소모임 하나가 연합체를 꾸리기에 이른다. 이들은 공간 및 재정확보의 문제로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의 이름도 가졌으나 보궐선거에서 한 팀이 출마를 하면서 이 이름은 폐기하고 여성자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오리엔테이션 문화제, 제 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을 치뤘다. 주로 이제까지 얘기되지 않았던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발언하되 자치단체들 각자의 다양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행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서 반대표 운동을 했던 사회대 여학우 모임(현 beyond)과 논의를 함께 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새로운 총여학생회 질서를 고민하는 모임'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던 중 중앙운영위원회가 공간과 재정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논쟁으로 공간을 지키고 재정 또한 1학기분을 받아서 자치단체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 이후 학내여성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새로운 움직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여학생회'를 재구성하고 실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2) 98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위에서 얘기했듯 여성자치연합을 함께 했던 자치단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게 되고 올 한해 집행부로서 함께 일하여 왔다. 총여학생회는 올해 초부터 늘어난 여학생 비율을 이유로 들어 총여학생비를 인상하는 긴 싸움을 해 왔고 결국 5%로 인상하여 공간과 재정을 별 문제 없이 확보하고 있다.

자치단체 모임을 겨울방학때부터 계속 가져왔으나 잘 모이지 않았다. 4월에 있었던 '따로 또 같이'라는 행사를 통해 자치단체들과의 연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모임은 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자치제 운영을 위한 예산을 따로 확보하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학생회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일정한 의무는 중앙운영위원회 참가와 여학

생처와의 만남, 생활협동조합이사회 참가등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연대회의'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에 참여하면서 8월 여성연대 한판 준비와 참가를 했고 대학연대 주최 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참가를 해 오고 있다.

큰 대중 사업으로 2월 오리엔테이션 문화제, 5월 미인대회 반대 문화제, 10월 여대생 신규실업 문화제를 주최하였다. 이 행사들은 전적으로 문화행사인 것은 아니며 그때그때의 문제의식을 대중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과 축적을 위한 이론적 작업과 대중 사업으로 '생활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전문언론지 '두입술'을 창간하고 독립작업을 진행중이다. '성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연대회의 참가의 성과를 집행부내에서 공유하고 비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몇 건을 처리하였으며 학내에서는 학칙제정을 위해 가능한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자치규약 쪽으로 힘을 쏟자는 결론을 내리고 학칙제정 주간에 유인물과 팸 나눠주기를 하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후원하였다.

2. 여성자치연합 평가

1)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실험을 평가해 본다면 우선 여성자치연합은 '자치'운동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또 그것을 지향하는 운동방식이자 조직원리를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치운동의 가장 큰 특징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민, 그로부터 동심원 방향으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여성운동을 정체성의 정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생물학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정체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새롭게 사고해야 한다고 본다. 즉 여기서 정체성이라 함은 여성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개인적 생존전략과 저항의 책략으로 그것은 또한 비판적인 실천이고 지식의 양태가 되는 것이다. 자치연합은 자기기반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시작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 보고자 하는 모임들이 모인다. 이는 또 여성운동에서 주장하는 '다양성의 정치'와 맥이 닿아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다양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멋대로 선그어지고 유형화되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다른 느낌의 개인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을 표현하고 조절해 가며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방식을 우리는 '다양성의 정치'라 부른다. 따라서 여성자치연합은 중앙집중적 권력을 가진 상위권력제라기 보다는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이라는 1차적 성격을 가지는 느슨한 테이블이며 때때로 여성운동진영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시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운영위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점

그러나 과연 어떠한 유인력이 이러한 자치연합 테이블의 계속성과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이 테이블이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대 학생회장들이 모이는 중앙운영위원회 형식의 여성운동판 복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내부질서의 운영원리를 어떠한 식으로 짜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자치연합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정적인 문제와 물리적인 공간확보의 문제다. 현재 학교라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데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와 그것에 의해 획득되는 대표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신뢰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다.

3.10대 총여학생회 건설의 문제의식과 평가

제 10대 총여학생회는 바로 이 점에 착목해 건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운동의 중요성과 탈집중적인 운동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시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학내의 운동질서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선택한 것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지 않았을 때 잃게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지의 판단은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있으면서 다른 학생회 라인보다 구조상 자율적인 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총여학생회 내부에서 공유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총여학생회 상은 '우리는 총여학생회를 과도기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이다. 과도기라 함은 총여학생회라는 것이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가 현 상황에서 가능한 전략이라 함은 우선 그것이 재정과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여 자치운동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내운동질서를 판통하고 있는 허구적인 언설로서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단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가능케 하고 또 어떤 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양날의 칼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금, 장기적으로 그 대표성을 이용하여 그 공고한 틀을 해체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총여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 10대 총여학생회 평가

이에 대해 올 한해의 사업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우선 첫째, 올해의 사업들은 사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 속에서 행해졌다고 보다 '무작정 실험'의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무작정 실험'들 중 대규모 대중 사업들의 경우 대중사업이라고 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빴던 느낌이다. 이는 뒤에서 이야기될 학생회로서의 한계에서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본다. 또 한가지, 학내에서의 일상에서 여성에 대해 말해지는 것, 행해지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시비결기 사업은 거의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반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자치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올해 총여학생회는 도적 장치에 대해서 언급정도만 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올해 하기에는 여러 객관적인 한계점들이 존재하기도 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학생회로서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년 사이클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하나 역시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문제의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연세내 여성운동의 구심점으로 담론생성을 주도해야 하는 위치로서의 부담감 때문에 행사를 치뤄내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한다.

4.연세내 여성운동의 전망-11대 총여학생회 건설과 여성자치연합 건설이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들 속에서 어렵게나마 앞으로의 방향이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올해 총여학생회 선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총여학생회 권력이 발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전적 재구성이 아니라 그냥 안하는 것 이상의 의

미를 갖기 힘들다. '여성주의'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 한해 총여학생회의 수사적 명칭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대학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길고긴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이름이다. 바로 여성운동의 확산과 차이들이 공존하는 자치질서의 흐름 생성이 그것이다. 그것을 언급한 것이 올해라면 내년은 제대로 시도해 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회 질서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총여학생회 해체에 대해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이다. 일단은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 입장들의 제출과 논쟁이 필요할 것이라 보며 내년이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총여학생회 선거와는 별도로 자치단체들의 여성자치연합 구상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치단체들의 협의체 내지는 연대체의 구성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여성자치연합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는 총여학생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총여 1인이 그 회의 테이블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총여 회의에 자치단체 1인이 들어오든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자치단체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재정적 공간적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다만 여기서 총여학생회를 방패막으로 사고하지 않았으면 한다. 총여학생회가 자치단체들에게 재정과 공간을 지원해주는 문제가 '해주는' 문제로 계속 남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제도적 기반의 운을 떼는 것이 총여학생회라 할지라도 빚힘이 실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당국은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그런 뒤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총여학생회의 장기적인 전망의 논쟁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명문화되어야 한다.

5. 마지막 잡소리

잊지 말자.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을.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상상하기를.

우 연세대학교 여성자치단체 연락처

공대 생공과 "레스보스" ----- 김은아 : 015-111-0978
 공대 여성모임 (준) ----- 김찬희 : 018-328-7688
 문대 여성모임 (준) ----- 강정임 : 019-567-9982
 사회대 "beyond" ----- 시타 : 015-119-9302
 다다 : 012-1127-3850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Womb - 이다 : 017-315-1976
 13번째 ----- 장담 : 015-8401-5917
 019-216-5917
 이과대 여학생회 ----- 김화경 : 012-1033-8742
 032-762-8742
 신과대 "물구나무" ----- 박선희 : 012-827-7980
 두입술 편집위원회 ----- 하리 : 012-320-9348
 피소 : 015-146-9880
 총여학생회실 : 361-3645